

다시 불붙은 국토균형발전 세종시만 키워서는 ‘공염불’

수도권 이어 또다른 블랙홀 우려
노무현 정부 균형정책 이후 10년
호남권 경제·인구 감소 가속화
쇠퇴한 지역부터 집중 지원해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회 등의 세
중 이전이라는 제한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전 국토의 조화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있
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로의 국회, 청와
대, 정부부처 이전을 추진중인 가운데 총
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드는 근시안
적인 방안보다는 지방의 경쟁력과 잠재력
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의 부·인재·자원
의 분산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과
거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
과 집중이 다시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이번
에는 근본적인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6일 통계청, 한국은행 등의 자료에 따르
면 공공기관 이전, 세종시 조성 등으로 대
표되는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이후

10년 이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
젝트가 종적을 감추면서 2016년부터 ‘수
도권 재집중’, ‘충청권 비대’, ‘호남권 집
체’라는 3가지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의
전 산업 산출액에서 수도권은 46.8%, 동
남권(부산·울산·경남) 18.0%, 충청권(대
전·세종·충남·충북) 12.8% 등을 차지한
반면 호남권은 9.8%에 불과했다. 지역 내
에서 소비·투자되는 자본 규모(최종 수
요) 역시 호남권은 226.9조원으로, 수도권
(1059.3조원)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동
남권은 398.6조원, 충청권도 284.7조원으
로 호남권을 크게 앞섰다.

통계청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과 향후 인구전망’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6만명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수도권 이
주 인구는 1만명이었다. 충청권은 세종시
조성과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 속
에 꾸준한 인구가 증가했다. 강원을 포함한
중부권 인구는 1970년 636만명에서 2020
년 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84만
명) 증가한 반면 호남권 인구는 1970년
697만명에서 1972년(69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20년 571만명으로 지난 50년

간 18.0%(125만명)가 감소했다.

정부의 자료와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나
듯 단순한 행정·입법부의 세종시 이전은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며 나머
지 지역의 인구·자원을 끌어당기는 ‘블랙
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충청권까지 비대해
지면서 국토의 한 축인 호남권만 불균형
파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고민이 아
닌 국토 전반에 대한 불균형 정도를 파악
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
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
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대상
을 기업, 대학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하
고, 이들에 대한 범국가적인 인센티브를 제
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해방 이후
경부선을 축으로 해 수도권과 영남권을
성장시키는 불균형 경제 정책에 이어 수도
권에 가까운 충청권에 과학기술투자, 세
종시 조성 등 정부 정책이 집중되면서 호남
권 고립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수도권
에서 가장 멀고 쇠락한 지역부터 집중 지원하
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펼쳐야 한다”이
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26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왼쪽부터), 김부겸, 박주민 당대표 후보가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이틀째… “내가 대표 적임자”

이낙연·김부겸·박주민

제주 이어 강원도 합동연설

“위기의 리더십 발휘하겠다”

“행정수도 이전 이끌겠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권 주자
들이 전국에서 열리는 대의원대회를 찾아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가운
데 진행되는 전당대회인 만큼, 유일하게
다수의 당원을 만날 수 있는 각 지역 대의
원대회가 사실상 표심몰이를 위한 ‘전쟁
터’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기호순)은 제주에 이어 26일엔 강원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강원도당 대의원대회를
찾아 자신이 대표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국민이, 국가가, 문재인 정부
가, 민주당이 어렵다”라며 “위기에는 위기
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나섰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민주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경험 등을 들
어 “저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한 경험이 많
이 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위기를 극복
하겠다. 모든 것을 불태워 불꽃처럼 일하
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행정수
도와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한 정치 대화를 주도하겠다”
며 “민주당을 더 두텁게 신뢰받는 정당으
로 재탄생하고, 노인·여성·청년·사회적 약자
의 아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감수성 높은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벌써 일부 언론은 내년 4월
재보선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레임덕 공격이 들

어울 것이고, 11개월 뒤 대통령 선거에 영
향을 미칠 것이고, 3개월 후 지방선거가 바
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 태풍이 오는데 선장이 ‘나
여기까지만 할래’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낙연 후보가 당 대표가
된 뒤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9일 이
전에 중도 사퇴해야 하는 점을 지적한 것
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뉴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을 사례로 들며 “전환의 시대를 열고 현
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이를 통해 2022년 대선에서 그 누가 후
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을 만
들겠다”고 덧붙였다. 유일한 40대 주자인
박 후보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국
민과 소통하는 정당을 만드는 일에 젊음이
약점이 되나, 연륜만이 정답인가, 과거 경
험만이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두려
워하지 말고 시대를 교체하자”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코로나19 장기화…광주만의 ‘고강도 2단계 거리두기’ 고민

타지역과 함께 하지 않으면 효과 제한적…일부 시민 피로감 호소
이미지 실추 부작용도…광주시 29일 종료 앞두고 연장 여부 주목

코로나19사태가 일상화·장기화할 것으
로 전망되면서, 광주시의 나홀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의 자기 희생적 방역수칙
준수로 자체 감염원이 없는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집단 감염을 유발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되레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들은 “한 달 가까이 일상생활
을 멈출 정도로 고강도 방역수칙을 철저
히 지키고 있는데, 잠잠해질만 하면 타지

역 유입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하다 보
니 이전 지친다”면서 “수도권발 유입을 차
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광주시민에
게만 방역수칙 준수를 강요하는 현 방역
시스템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극한 피로
감을 호소했다.

방역 전문가들도 “물론 고강도 방역시
스템을 적용하면 코로나19를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타지역과 함께 하
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특히 코
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누
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최고 수준 방역’
보다는 타 지역과 보조를 맞추는 ‘최선의

방역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민중심의 방
역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광주만의 고강도 방역조치는 ‘지역 이
미지 실추’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
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와 함께 광주가
코로나19 대규모 발생지역이란 이미지가
전 국민에게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대전발 코
로나19 2차 유행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오
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으며, 일부는 3단계 수준의 초고강
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1단계는
방역수칙 준수라는 전제 아래 모임과 행
사에 제약이 없는 등 사실상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이뤄진다. 반면 2단계는 실내 50
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
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

정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
은 제약이 따른다.

전국적으로 이날부터 야구 등 프로 스포
츠 관중 입장이 10% 이내에서 허용됐
지만, 광주만 예외다.

광주시민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달
간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달 27일 광주를 덮친 코
로나19 2차 대유행의 감염원이 대전이었
고, 지난 17일 확진자 0명’을 회복하자마
자 다음날인 18일 갑자기 발생한 집단감
염(10명)사태도 ‘서울 송파발’ 확진자라
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피로감을 넘어 집단적 허탈감마저 번지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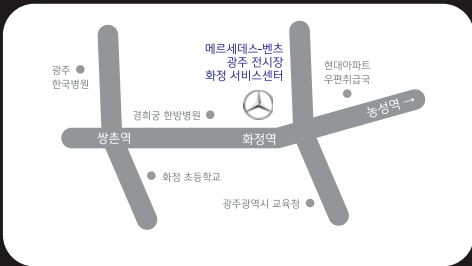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 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시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 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시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 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시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